

# 청소년의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과 분노 통제의 중재효과<sup>†</sup>

김진영<sup>‡</sup>

서울여자대학교 인간개발학부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과 분노 통제의 중재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309명(남자 136명, 여자 173명)에게 열등감 척도(김응만, 1996), 한국판 공격성 척도(Korean Version of Aggression Questionnaire; AQ-K;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특성 메타-기분 척도(Korean Version of Trait Meta-Mood Scale; K-TMMS; 이수정, 이훈구, 1997),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Korean Version of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의 하위 척도인 분노 통제 척도를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를 통해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그리고 분노 통제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그리고 분노 통제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 통제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반면에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열등감 및 공격성을 다루는 심리학적인 프로그램에서 분노 통제의 기술과 더불어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열등감, 공격성, 분노 통제,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

<sup>†</sup>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진영, (139-774)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간개발학부, Tel: 02-970-5558, E-mail : kimjy@swu.ac.kr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로서 이 시기에는 성인기에 비해 감정변화가 심할 뿐만 아니라 공격성이 더 높은 수준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Adelson & Doehman, 1980). 특히 청소년기에 공격성 및 폭력 문제를 보일 경우 이러한 행동은 성인기까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ron, 1987; Olweus, 1979). 많은 종단적인 연구 결과들은 공격성이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심리적, 행동적 적응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해 주는 변인들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박민정, 최보가, 2004; Coie & Dodge, 1998). 따라서 청소년기에 분노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사회적인 적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이숙, 이춘아, 1998; Bruene-Butler, Hampson, Elias, Clabby, & Schuyler, 1997; Elias, Gara, Schuyler, Branden-Muller, & Sayette, 1991).

비록 과거에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하여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을지라도 과거의 연구들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편향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Crick et al., 1999; Crick, Ostrov, & Werner, 2006; Crick & Werner, 1998). 첫째, 전통적으로 공격성 관련 연구에서는 공격적인 여아보다는 공격적인 남아에게 더 큰 관심을 두었다. 둘째, 남아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격 행동들은 주목받는 반면에 여아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공격 행동들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의 공격성 연구들에서는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에 대한 조망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아들이 주로 보이는 신체적인 공격성과는 대조적

으로, 관계적 공격성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하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거나 무리에서 따돌리는 등의 직·간접적인 공격행위들을 포함한다(Crick & Grotpeter, 1995). 많은 연구들은 관계적 공격성이 남아들보다는 여아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McNeilly-Choque, Hart, Robinson, Nelson, & Olsen, 1996; Ostrov & Keating, 2004). 그리고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은 신체적인 공격성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Crick et al., 1999). 또 관계적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안정적인 특성을 나타냈다(Crick, 1996; Cillessen & Mayeux, 2004). 일반적으로 학령기 초기에 남아는 외현적인 공격성을 많이 보이고 또 여아는 관계적인 공격성을 많이 나타내는 반면에 청소년기에 도달하면서부터는 남녀 모두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공격성에 비해 관계적인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Cairns, Cairns, Neckerman, Ferguson, & Gariépy, 1989).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본다면, 남아들과 여아들은 공격성을 드러내는 패턴이 다를 뿐이며 특별히 어느 쪽이 더 공격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경희, 1998; Crick & Grotpeter, 1995).

Adler(1907/1956)에 따르면, 공격성과 열등감(inferiority feeling)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열등감은 개인이 외부 환경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각할 때 경험하게 되는 부적절감을 의미한다(Adler, 1931/1992). Adler(1912/2002)는 이러한 열등감이 내적인 불안정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개인은 이러한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월감을 향한 보상

적 시도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Adler (1931/1992)는 어린 시절에 형제자매나 가족의 죽음에서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커서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사자를 무서워하는 아이가 동물원에서 자신은 사자가 조금도 무섭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 등이 이러한 보상적 시도의 예에 해당된다고 소개하였다. 이처럼 열등감에 대한 반응 과정에서 사람들이 우월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Adler의 주장은 이후에 경험적인 연구(예컨대, 정민, 노안영, 2010)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Adler(1931/1992)에 따르면, 인간은 유아기의 무기력한 상태를 거쳐 심리적으로 발달해 가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공통적으로 열등감을 체험하게 된다. 하지만 적응적인 사람의 경우, 건강한 형태의 보상적 시도를 통해 열등감을 유발하는 문제 상황 자체를 실제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발달 과정에서 열등감 및 심리적인 긴장감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부적응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적 시도가 문제에 현실적으로 직면하기 보다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Adler(1912/2002)는 열등감이 과도한 공격성을 보이는 것과 같은 부적응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믿었다.

한편 Maslow(1943)는 욕구위계설(hierarchy of needs)에서 자아존중의 욕구(esteem needs)를 소개하면서 개인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Maslow(1970)에 따르면, 개인은 생물학적 욕구(biological needs), 안전의 욕구(safety and security needs) 그리고 소속과 애정의 욕구

(belongingness and love needs)가 충족되고 나면 스스로를 존중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가 좌절될 경우 개인은 자신감이 결여된 형태의 열등감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마치 비타민 결핍이 신체적인 질병을 초래하는 것과 유사하게 열등감은 자기존중의 욕구가 미충족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일종의 결핍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Maslow, 1970).

또 Erikson(1950)은 전생애 발달(life span development) 이론에서 열등감을 학령기 아동의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위기(psychosocial crisis)로 소개하였다. Erikson(1950)에 따르면, 학령기에 아동이 부모, 교사,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형태는 열등감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시기에 아동은 지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을 통해서 사회적인 과제를 잘 해결할 경우에는 근면성(industry)을 발달시키는 반면에 실패와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열등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열등감은 학령기 전(前)단계에서 발달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가족, 학교 그리고 사회가 아동을 편견을 갖고 대할 때 주로 나타나게 된다.

비록 이론가들마다 열등감의 발생과정에 대한 설명 방식은 서로 다를 지라도 기본적으로 열등감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열등감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부적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예를 들면, 해외 연구들은 열등감이 낮은 학업성취도(Strano & Petrocelli, 2005), 낮은 수준의 사회적 성취(Mehrabian, 2000), 우울(Gilbert, McEwan, Bellew, Mills, & Gale, 2009) 그리고 불안

(Gilbert et al., 2007) 등과 관계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열등감에 관한 국내 연구들에서도 정신장애(김형수, 김홍규, 2006), 정신신체증상(천숙희, 차보경, 2008), 청소년 비행 문제(오경미, 1999), 비합리적 신념(양미옥, 2004), 낮은 수준의 자기효능감(김현, 2005) 그리고 불안정애착(조법제, 2006) 등과의 연관성이 보고되었다.

전통적으로 임상가들 사이에서는 열등감 또는 낮은 자존감이 공격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믿음이 유포되어 있었다(Cole, Chan, & Lytton, 1989; McCarthy & Hoge, 1984; McKinney, Miller, Beier, & Bohannon, 1978). 비록 열등감과 낮은 자기존중감이 동의어는 아닐지라도 그 둘은 개념적으로 연관성이 매우 높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Branden, 2001). 자기-존중감(self-esteem)은 삶의 다양한 도전들에 유능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통해 스스로 행복감을 경험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관적인 가치감을 의미한다(Branden, 1969).

지금까지 열등감과 공격성 간 연관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Moore, Stuart, McNulty, Addis 및 Cordova(2010)는 문제 상황을 지적이고 이성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지적 열등감이 폭력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Smith 등(1996)은 열등감에 대한 자각이 복수심에 대한 정서적 지향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열등감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격노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Scheff & Retzinger, 1991; Tangney & Dearing, 2002). 하지만 Bushman 등(2009) 그리고 Baumeister, Smart 및 Boden(1996)은 열등감과 같은 내적인 부적절감이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주장들이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수렴적인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점은 낮은 자존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험적인 연구 결과들은 낮은 자존감이 공격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Ang & Yusof, 2005).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낮은 자존감과 공격성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고(Bushman & Baumeister, 1998; Kirkpatrick, Waugh, Valencia, & Webster, 2002; Konrath, Bushman, & Campbell, 2006; Twenge & Campbell, 2003)에서 지나치게 자존감이 고양될 경우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보고(Baumeister, Smart, & Boden, 1996; 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격성과 자존감이 U자 형태의 곡선 관계를 갖는다는 주장(Perez, Vohs, & Joiner, 2005)과 그에 대한 반박(Webster, 2007)이 더해져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열등감 혹은 낮은 자존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결과들이 수렴적 결과를 보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는 중재변인의 존재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중재변인이란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의 방향이나 강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위계적 회귀 분석 또는 변량분석 절차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할 경우 중재효과가 있다고 판단 내리게 된다(Frazier, Tix, & Barron, 2004). 지금까지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 대한 커다란 학문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두 변인 간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재변인에 대해서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재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중재효과, 즉 상호작용 효과가 개입되는 경우 중재효과와 관계있는 변인들의 주 효과보다는 연관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해석 상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Keppel & Zedeck, 1989). 둘째, 임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열등감과 공격성 간 이론적인 관계 자체보다는 그러한 관계를 적응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조절 변인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중재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으로는 분노 통제 변인을 들 수 있다. Ekman(2003)에 따르면, 분노는 공격행동이 표출되는 동기적인 상태에 해당된다. 따라서 분노를 통제하는 양식은 공격행동이 나타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Spielberger(1988)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는 분노 관련 특성을 연구하는 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측정 도구 중 하나이다(문은주, 김성희, 2008). Spielberger(1988)는 분노표현 방식을 분노 표출(anger-out), 분노 억제(anger-in), 그리고 분노 통제(anger-control)의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후 Spielberger, Ritterband, Sydeman, Reheiser, 및 Unger(1995)는 분노표현 방식을 적응적인 양식과 부적응적인 양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Gottlieb(1999)은 분노 통제를 기능적인 분노표현 양식으로 그리고 분노 표출 및 분노 억제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양식으로 분류하였다. STAXI의 분노 통제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 및 언어적 공격성 그리고 적대감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교헌, 전경구, 1997; 서수균, 권석만, 2002; 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Spielberger, Reheiser, & Sydeman, 1995). 이런 점에서 본다면, 비록 열등감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분노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격성 수준이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분노표현 양식의 적응성 여부를 평가할 때는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서지능은 정서를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Mayer & Salovey, 1997). 열등감과 공격성 등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적절히 통제하는 능력이 정서지능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Salovey & Mayer, 1990) 정서지능 수준은 공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로 낮은 정서지능 수준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의 지표인 경계선적인 성격 특성 점수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Bar-On, 2000). 또 낮은 정서지능 수준은 육체적인 싸움 및 기물 파괴 등과 같은 폭력 행동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Brackett, Mayer, & Warner, 2004). 그리고 남성 가석방자 집단 중에서 정서지능이 낮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뿐만 아니라 더 폭력적인 행동을 나타냈다(Taylor, 2000). 정서지능에 포함된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은 공감(empathy)이라고 할 수 있다. Björkqvist, Österman, 및 Kaukiainen(2000)에 따르면 공감은 모든 유형의 공격성과 부적인 상

관을 나타낸다.

정서지능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Mayer, Salovey, Caruso, & Sitarenios, 2003). 그 하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예컨대, Bar-On, 2007)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정신적인 능력으로서의 정서지능을 객관적인 수행검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 정신적인 능력으로서의 정서지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MSCEIT (Mayer-Salovey-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 Mayer, Salovey, & Caruso, 2002)가 있다. MSCEIT와 유사한 특성을 평가하면서도 MSCEIT와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는 자기보고식 검사인 특성메타-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이하 TMMS,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가 있다. 이 척도는 MSCEIT에 비해 문항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시가 용이하고 또 자신의 감정에 대한 태도와 믿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메타-기분(meta-mood)은 자신의 기분이나 정서에 대한 사고와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alovey, 1996). TMMS는 감정의 명료성(clarity of feelings), 감정에 대한 주의집중(attention to feelings), 회복(repair)의 3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의 명료성 척도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에 대한 주의집중 척도는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정서 경험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복 척도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를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TMMS 점수는 MSCEIT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ohm & Clore, 2002a).

Salovey 등(1995)에 따르면, 정서적인 유능성을 갖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이 체험하는 정서들을 정확하게 변별하고 또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Gohm과 Clore(2002a, 2002b)는 지각된 정서지능(self-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혹은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에 대한 지표로서의 TMMS 총점이 긍정적인 재해석 및 성장, 능동적인 대처, 사회적 지지의 추구 등 적응적인 대처 방식과 정적인 상관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분노 통제와 마찬가지로, 열등감 수준이 높더라도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을 갖추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에 대한 이러한 검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과 분노 통제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그리고 분노 통제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Hamacheck(1978)에 따르면, 열등감의 주요한 징후들 중 하나는 바로 방어적인 형태의 공격성이다. 따라서 열등감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분노 통제가 요구되는 상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열등감 관련 선행 연구들(예컨대, Moore et al., 2010)은 열등감에 상응하는

수준의 분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열등감이 공격성 및 폭력행동을 촉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열등감 수준이 높더라도 만약 적절한 분노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열등감 수준이 낮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격성 수준 역시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열등감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부합되는 대응 방식은 ‘높은 열등감과 높은 분노 통제’ 혹은 ‘낮은 열등감과 낮은 분노 통제’가 결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서지능이 정서를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Mayer & Salovey, 1997)을 고려해 볼 때,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열등감과 관련된 문제 상황과 대응 방식 간 적합도가 높은 조건에서 적합성이 낮은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공격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높은 열등감과 높은 분노 통제가 결합된 조건’ 및 ‘낮은 열등감과 낮은 분노 통제가 결합된 조건’에서 ‘높은 열등감과 낮은 분노 통제가 결합된 조건’ 및 ‘낮은 열등감과 높은 분노 통제가 결합된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열등감 수준과 대응 방식 간 적합도가 같은 조건에서는 공격성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높은 열등감과 높은 분노 통제가 결합된 조건’과 ‘낮은 열등감과 낮은 분노 통제가 결합된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에서 특별히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열등감 관련 문제 상황과 대응 방식 간

적합성이 높은 조건과 적합성이 낮은 조건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은 정서를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Gohm & Clore, 2002a) 열등감 관련 문제 상황과 대응 방식 간 적합성이 낮은 조건 하에서도 보상적인 기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높은 열등감과 높은 분노 통제가 결합된 조건’ 및 ‘낮은 열등감과 낮은 분노 통제가 결합된 조건’과 ‘높은 열등감과 낮은 분노 통제가 결합된 조건’ 및 ‘낮은 열등감과 높은 분노 통제가 결합된 조건’ 간에 유사한 수준의 공격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가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열등감 수준과 대응 방식 간 적합도가 높은 조건에 비해 적합도가 낮은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조적으로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열등감 수준과 대응 방식 간 적합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서울 시내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9명(남자 136명, 여자 173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질문지에 응답한 후 검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측정도구

**열등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열등감을 측정하는 척도로 김응만(1996)이 제작한 열등감 검사(40 문항)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신체적, 사회적, 가정적, 그리고 학업적 열등감의 네 가지 하위요소들을 평가하며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 표본에서 나타난 열등감 하위 척도들의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 계수)는 신체적 열등감 .67, 사회적 열등감 .88, 가정적 열등감 .83, 그리고 학업적 열등감 .85였다. 또 열등감 척도 전체 문항들에 대한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 계수)는 .93이었다.

**한국판 공격성 척도(Korean Version of Aggression Questionnaire; AQ-K).** 공격성 척도(Aggression Questionnaire; Buss & Perry, 1992)는 Buss와 Durkee(1957)의 적대감 척도(hostility inventory)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분노감, 그리고 적대감의 네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한 후 타당화 작업을 거친 29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표본에서 나타난 공격성 하위 척도들의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 계수)는 신체적 공격 .75, 언어적 공격 .74, 분노감 .74, 그리고 적대감 .80이었다. 또 공격성 척도 전체 문항들에 대한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 계수)는 .86이었다.

**한국판 특성 메타-기분 척도(Korean Version of Trait Meta-Mood Scale; K-TMMS).**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정서적 유능

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및 Palfai(1995)의 TMMS를 우리말로 번안한 후 타당화 연구를 진행한 21 문항을 사용하였다. TMMS는 감정의 명료성, 감정에 대한 주의집중, 회복의 세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Gohm과 Clore(2002a)의 연구에서처럼,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에 대한 지표로 TMMS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Gohm과 Clore(2002a)에 따르면, TMMS가 제작되었던 초기에는 세 가지 하위 척도들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지지 증거가 존재했지만 보다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후속 연구 결과에서는 TMMS 전체 척도가 매우 높은 수준의 내적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표본에서 나타난 TMMS의 전체 척도에 대한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 계수)는 .80이었다. 그리고 하위 척도별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 계수)는 주의집중 .69, 명료성 .75, 그리고 회복 .77이었다.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Korean Version of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본 연구에서는 분노 통제 척도로 Spielberger(1988)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의 한국어판(STAXI-K;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에 있는 분노 표현 양식 척도 중 분노 통제(anger-control) 척도 8문항을 사용하였다. 분노 통제 척도는 4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 표본에서 나타난 분노 통제 척도에 대한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 계수)는 .81이었다.



**통계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과 분노 통제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그리고 분노 통제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변인들 간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 절차와 범주적 변인과 연속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 절차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센터링(centering) 과정이 필요하다(박광배, 2003).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Frazier, Tix와 Barron (2004)의 제안에 기초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독립변

인들 중 연속 변인들의 총점을 z 점수로 변환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회귀계수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해석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razier, Tix, & Barron, 2004).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삼원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삼원 상호작용 항이 회귀 식에 포함되었을 때 R<sup>2</sup>의 변화량이 유의미한 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 과**

주요 변인들 간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 열등감, 공격성,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그리고 분노 통제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열등감은 공격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그리고 TMMS로 측정된 지각된 정서

표 1. 열등감, 공격성, TMMS, 그리고 분노 통제 간 상관

	열등감	공격성	TMMS	분노 통제
열등감				
공격성	.12*			
TMMS	-.20**	-.23**		
분노 통제	.01	-.07	.20**	
성별	-.04	.00	-.15**	.16**

주. 성별 변인의 경우, 남자에는 1 그리고 여자에는 -1을 할당하는 대비 코딩을 하였음.

\**p* < .05., \*\**p* < .01.

표 2. 성별에 따른 열등감, 공격성, TMMS, 분노 통제의 평균값

	남자( <i>n</i> =136)		여자( <i>n</i> =173)		<i>t</i> 값
	<i>M</i>	<i>SD</i>	<i>M</i>	<i>SD</i>	
열등감	82.48	22.19	84.48	22.86	-.77
공격성	64.90	14.71	64.82	14.72	.04
TMMS	68.12	9.72	71.28	10.60	-2.70*
분노 통제	19.87	5.10	18.43	4.08	2.68*

\**p* < .01.

적 유능성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또 공격성은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과 분노 통제

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성별은 TMMS 및 분노 통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표 2에는 성별에 따른 열등감, 공격성, TMMS,

표 3.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 TMMS, 그리고 분노 통제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beta$	$t$	95% CI		$\Delta R^2$
			하한값	상한값	
단계1					.06**
열등감	.08	1.03	-.02	.12	
TMMS	-.21	-3.67**	-.46	-.14	
분노 통제	-.03	-.44	-.44	.28	
단계2					.03*
열등감	.07	1.23	-.08	.12	
TMMS	-.21	-3.59**	-.46	-.14	
분노 통제	-.06	-1.06	-.55	.17	
열등감×TMMS	.01	.23	-1.41	1.78	
열등감×분노 통제	-.18	-3.07**	-3.79	-.83	
TMMS×분노 통제	-.03	-.58	-1.92	1.04	
단계3					.02*
열등감총점	.04	.77	-.04	.10	
TMMS_총점	-.22	-3.76**	-.47	-.15	
분노통제	-.04	-.65	-.48	.243	
열등감×TMMS	.01	.11	-1.50	1.67	
열등감×분노통제	-.18	-3.11**	-3.79	-.854	
TMMS×분노통제	.04	.59	-1.16	2.16	
열등감×분노 통제×TMMS	.15	2.38*	.28	2.94	

주. TMMS=Trait Meta-Mood Scale, \* $p < .05$ , \*\* $p < .01$ .

표 4. 각 척도별 중앙값을 기준으로 분류된 하위집단에서의 공격성 점수

집단 유형	$M$	$SD$	95% CI	
			하한값	상한값
낮은 TMMS 점수 집단				
낮은 열등감 점수 집단				
낮은 분노 통제 점수 집단( $n=35$ )	63.31	2.43	68.10	58.53
높은 분노 통제 점수 집단( $n=23$ )	70.96	3.00	76.86	65.06
높은 열등감 점수 집단				
낮은 분노 통제 점수 집단( $n=52$ )	71.40	1.99	75.33	67.48
높은 분노 통제 점수 집단( $n=39$ )	63.82	2.30	68.35	59.29
높은 TMMS 점수 집단				
낮은 열등감 점수 집단				
낮은 분노 통제 점수 집단( $n=43$ )	63.79	2.19	68.10	59.48
높은 분노 통제 점수 집단( $n=54$ )	61.44	1.96	65.29	57.60
높은 열등감 점수 집단				
낮은 분노 통제 점수 집단( $n=25$ )	62.52	2.88	68.18	56.86
높은 분노 통제 점수 집단( $n=38$ )	62.29	2.33	66.88	57.70

주. 참여자 309명을 TMMS, 열등감, 및 분노 통제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양분했음.

그리고 분노 통제 점수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TMMS 점수와 높은 분노 통제 수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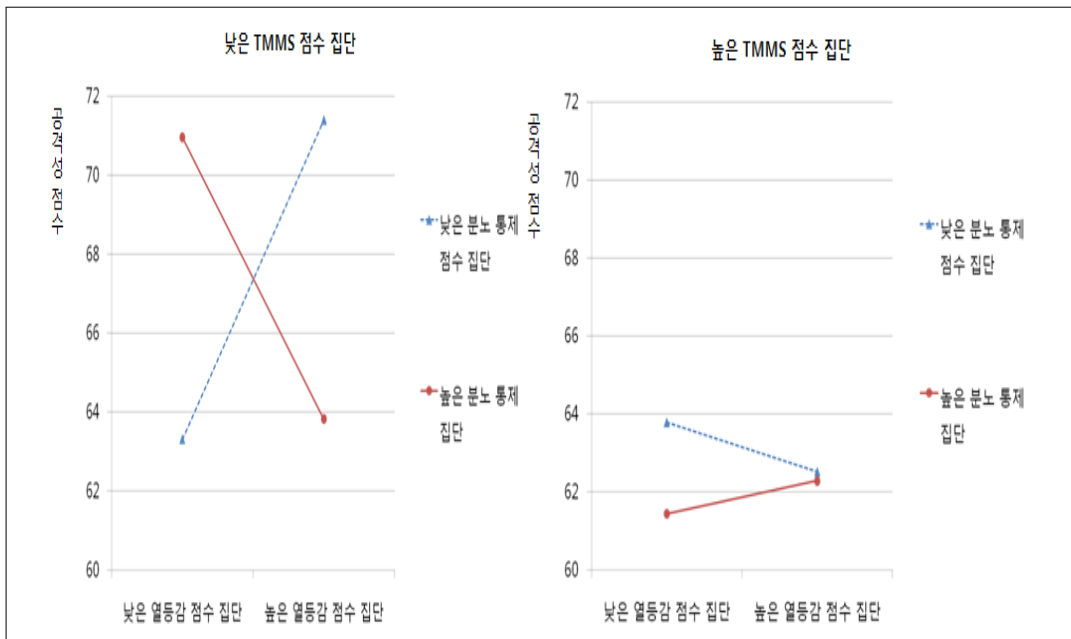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를 활용해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그리고 분노 통제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첫 번째 단계에서의 설명 변량의 변화량은 약 6%( $\Delta R^2 = .06$ )였다. 그리고 이원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의 설명 변량의 변화량은 약 3%( $\Delta R^2 = .03$ )였다. 또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의 설명 변량의 변화량은 약 2%( $\Delta R^2 = .02$ )였다.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그리고 분노 통제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사후 분석에서 TMMS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를 상·하의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 통제의 상호작용 효과를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유능성 점수가 낮은 집단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 통제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반면에,  $F(1, 145) = 8.20, p = .01$ , 지각된 유능성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 통제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156) = .61, p = .44$ .

다음으로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그리고 분노 통제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주. 전체 연구 참여자 309명을 TMMS, 열등감, 그리고 분노 통제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하 집단으로 양분하여 하위 집단별로 구분한 후 도시한 것임.

그림 1.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 분노 통제, 및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를 도식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를 TMMS, 열등감, 그리고 분노 통제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하 집단으로 양분하였다. 그 후 TMMS, 열등감, 그리고 분노 통제 점수의 조합 관계를 활용해 모두 8개의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류된 하위집단들의 각 측정치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림 1에는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 분노 통제, 및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도식하였다.

앞서 제시한 표 1에서 성별 변인은 열등감 및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을 지라도, TMMS 및 분노 통제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TMMS와 분노 통제가 청소년의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중재변인의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두 중재변인과 상관을 보이는 성별 변인 역시 청소년의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중재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두 가지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첫째, 성별이 청소년의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중재변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둘째, 성별이 청소년의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TMMS 또는 분노 통제 변인 중 어느 한 변인과 함께 중재변인의 역할을 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를 활용해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 항이 추가되었을 때의  $R^2$ 의 변화량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F(1, 305)=.14, p=.71$ . 또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 TMMS, 그리고 성별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분

석한 결과, 삼원 상호작용 항이 추가되었을 때의  $R^2$ 의 변화량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F(1, 301)=.20, p=.66$ . 그리고 공격성에 대한 TMMS, 분노 통제 그리고 성별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삼원 상호작용 항이 추가되었을 때의  $R^2$ 의 변화량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F(1, 301)=.13, p=.72$ . 마지막으로,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 분노 통제 그리고 성별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삼원 상호작용 항이 추가되었을 때의  $R^2$ 의 변화량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F(1, 301)=1.42, p=.24$ .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과 분노 통제가 중재효과를 나타내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설대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그리고 분노 통제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청소년의 열등감 및 공격성 간 관계에 대한 학문적인 논쟁과의 연관성 부분이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지금까지도 열등감 혹은 낮은 자존감과 공격성 간의 관계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다 (Baumeister, Smart, & Boden, 1996; Bushman & Baumeister, 1998). 비록 상관 값이 작았을 지라도 본 연구에서 열등감과 공격성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열등감과 공격성에 대한 임상가들의 오랜 통념(예컨대, McKinney

et al., 1978)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둘째, 열등감과 공격성 간 이론적 관계 자체보다 열등감과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심리학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대한 시사점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 통제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반면에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열등감과 공격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과 분노 통제가 열등감 및 공격성 간 관계에서 효과적인 조절 변수의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열등감이 높든지 아니면 낮든지 간에 그리고 분노 통제 수준이 높든지 아니면 낮든지 간에 비교적 일정한 수준의 공격성을 나타냈다. 반면에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높은 열등감과 높은 분노 통제가 결합된 조건’ 및 ‘낮은 열등감과 낮은 분노 통제가 결합된 조건’에서 ‘높은 열등감과 낮은 분노 통제가 결합된 조건’ 및 ‘낮은 열등감과 높은 분노 통제가 결합된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나타냈다.

특히 분노 통제 자체는 적응적인 분노 표현 양식(Gottlieb, 1999)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조건과 결합될 경우 공격성을 낮추기 보다는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수준이 높은 사람의 분노 통제 양식과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이 낮은 사람의 분노 통제 양식 간에는 질적

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노 통제 척도는 일종의 주관적인 자기보고식 검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스스로 분노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공격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열등감과 공격성을 다루는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맹목적으로 분노 통제의 기술을 전하려 하기 보다는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분노 통제의 기술을 전하는 것에 비해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화난 감정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또 노력하는 것”과 “스스로 화난 감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실제로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예로는 긍정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낙관성 훈련(예컨대, Seligman, 1991)을 들 수 있다. Seligman(1991)이 제시한 낙관성 훈련의 예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인화(personalization) 수준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사건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각할 수 있다. 예컨대, 친구와 말다툼을 한 경우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개인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 친구가 오해를 한 것뿐이야.”라고 말한다. 하지만, 개인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나는 대인관계가 안 좋아.”라고 말한다. 후자의 경우 만약 본인 스스로 내뱉은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앞으로도 친구와 말다툼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 대인관계가 서툰다고 믿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 적게 기울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자와 박애정(2006)은 국내에서 진행된 열등감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24편의 논문을 메타분석한 후, 심리학적 개입 프로그램이 열등감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의 크기(effect size)가 약 -1.5 수준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Cohen(1977)이 제시한 기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영향력이 매우 큰 수준에 해당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열등감 프로그램에서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공할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보다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맥락에서 건강교양(health literacy)의 하나인 정서교양(emotional literacy)은 청소년의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건강 교양은 건강의 증진과 유지를 위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Nutbeam, Wise, Bauman, Harris, & Leeder, 1993). 지금까지 신체적 건강을 위한 건강 교양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에 정서교양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정서교양은 '정서의 지각, 이해, 관리, 및 적응적 활용에 기여하는 정서 관련 지식과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Bocchino, 1999). 정서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정서를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측면과 관계된 암묵적인 지식(tacit knowledge)을 주로 다루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식은 형식적 지식(codified knowledge)과 암묵적인 지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식적인 지식에는 전통적으로 '일반

적 지식(know-what)'과 '원리에 관한 지식(know-why)'이 포함된다. 이러한 형식적인 지식들에서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형식적인 지식은 주로 언어적인 체계를 통해 전달된다. 반면에 암묵적 지식은 주로 '방법에 관한 지식(know-how)'과 '전문가에 관한 지식(know-who)'를 포함한다. 감정 표현 및 지각 기술 등과 같이 쉽게 형식화할 수 없는 '노하우'는 주로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교류를 통해 습득되는 지식을 말한다. 또 사회적인 문제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고 또 자신이 어떤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역시 사회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습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로 정서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이처럼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만큼 어려운 정서 관련 암묵적 지식을 훈련하게 된다.

1994년에 전 세계의 학교 교육 장면에서 정서 지능을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할 목적으로 "사회정서 학습심화를 위한 협력자(Collaborative to Advance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CASEL)"라는 조직이 설립되었다(Ciarrocchi, Forgas, & Mayer, 2001). CASEL에서는 효과적인 정서교양 훈련을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제 중심 프로그램들(예컨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공동의 협력 구조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Elias et al., 1997). 실제로 많은 경험적인 연구들(Bruene-Butler et al., 1997; Elias et al., 1991)은 사회적인 문제 상황 하에서 정서교양 관련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훈련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공격행동 및 품행 문제들에서 유의미

한 감소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예를 들면, Greenberg, Kusche, Cook, 및 Quamma(1995)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들은 정서 단서의 인식, 정서 규칙, 정서적 경험에 대한 의사표현, 정서의 복잡성 인식, 그리고 정서의 변화에 대한 이해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정서 교양 훈련 프로그램은 정서적 유능성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 모두에게서 정서의 인식과 이해 그리고 조절 등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정서교양 훈련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분노 통제 기술의 사례로는 Elias와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프로그램(Elias & Clabby, 1988; Elias & Tobias, 1990)을 들 수 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교양 교육의 차원에서 지역 사회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노 통제 기술을 가르친다. 이러한 개입 프로그램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분노 유발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그만”이라고 말하거나 “침착”하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감이 가라앉을 때까지 숫자를 세거나 긴장이완 호흡법을 반복하는 식으로 분노 대처 관련 행동의식(behavioral rituals)을 지속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스스로를 격려하거나 사회적 인 지지를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며 학생들은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방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했을 때의 체험담을 다른 학생들과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별 변인은 열등감 및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TMMS 및

분노 통제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하지만 후속 분석에서 성별은 청소년의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중재변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TMMS 또는 분노 통제 변인 중 어느 한 변인과 연계된 형태로도 중재변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에서 성차를 보이는 학령기 초기와는 달리 청소년기에는 남녀 모두 공격성을 드러내는 패턴이 유사해진다는 주장(예컨대, Cairns et al., 1989)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재변인으로 정서지능 혹은 정서적 유능성 자체가 아니라, 소위 자기-지각된 정서지능 혹은 정서적 유능성을 사용하였다. 비록 TMMS 점수가 MSCEIT 점수와 정적인 상관을 보일지라도(Gohm, & Clore, 2002a), TMMS에서는 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한 태도와 믿음을 평가한다. 따라서 차후에 능력으로서의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예컨대, MSCEIT)를 활용해서 정서적 유능성의 중재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생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열등감,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그리고 분노 통제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학생들에 대해서도 일반화될 수 있는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수준이 자기보고식 척도를 이용해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격성 점수는 객관적인 공격행동 수준을 평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자기보고식 척도 이외의 방법(예컨대, 행동관찰)을 활용해 공격성을 측정할 후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김교현, 전검구(1997).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79-95.
- 김응만(1995). 열등감 해소 프로그램이 고등학교의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 현(2005). 고등학생의 학업성패에 대한 귀인과 열등감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형수, 김홍규(2006). 초,중,고 및 대학생들의 열등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이론과 실천 (구 한독교육학연구)*, 11(1), 37-69.
- 문은주, 김성희(2008). 고등학생용 분노척도 개발. *한국교육*, 35(1), 151-170.
- 박광배(200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학지사.
- 박민정, 최보가(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95-104.
- 서수균, 권석만(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 501.
- 양미옥(2004).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열등감과 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미(1999). 이혼가정 자녀들의 열등감 : 대전 분류심사원생들을 중심으로.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희(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자, 박애정 (2006). 열등감 감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중등교육연구* 54(1), 145-165.
- 이수정, 이훈구(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숙, 이춘아(1998).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67-77.
-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정민, 노안영(2010). 열등감 반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51-367.
- 조범제(2006). 대학생의 생활양식 및 애착 유형에 따른 열등감 증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천숙희, 차보경(2008). 청소년 여학생의 열등감,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의 관계: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효과. *아동간호학회지*, 14(4), 343-351.
- Adelson, J., & Doehman, M. J. (1980). The psychodynamic approach to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ce psychology* (pp. 99-116). New York, NY: Wiley.
- Adler, A. (1956). Organ inferiority and compensation. In H. L. Ansbacher & R. R. Ansbacher (Eds.)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New York: Harper Torch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07)
- Adler, A. (1992). *What life could mean to you*. (C. Brett, Trans.) Oxford, UK: Oneworld Publication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31)
- Adler, A. (2002). The neurotic character. In H. Stein (Ed.) & C. Koen (Trans.), *The collected*



- clinical works of Alfred Adler* (Vol. 1). San Francisco: Alfred Adler Institute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12)
- Ang, R. P., & Yusof, N.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narcissism, and self-esteem in Asian children and adolescents. *Current Psychology, 24*, 113-122.
- Bar-On, R. (2000).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 Insights from the Emotional Quotient Inventory (EQ-i). In R. Bar-On and J.D.A. Parker (Eds.),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in the workplace* (pp. 363-88). San Francisco: Jossey-Bass.
- Bar-On, R. (2007). The Bar-On model of emotional intelligence: A valid, robust and applicable EI model. *Organizations & People, 14*, 27-34.
- Baumeister, R. F.,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 26-29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 5-33.
-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2000). Social intelligence - empathy = aggression?: Erratum. *Aggression & Violent Behavior, 5*, 429.
- Bocchino, R. (1999). *Emotional literacy: To be a different kind of smart*.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Brackett, M. A., Mayer, J. D., & Warner, R. M. (2004). Emotional intelligence and its relation to everyday behaviou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1387-1402.
- Branden, N. (1969). *The psychology of self-esteem*. New York: Bantam.
- Branden, N. (2001). *The psychology of self-esteem: a revolutionary approach to self-understanding that launched a new era in modern psych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 Bruene-Butler, I., Hampson, J., Elias, M. J., Clabby, J., & Schuyler, T. (1997). The improving social awareness-social problem-solving project. In G. Albee & T. Gullotta (Eds.): *Primary prevention works* (pp. 239-267). Newbury Park, CA: Sage.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Bushman, B. J., Baumeister, R. F., Thomaes, S., Ryu, E., Begeer, S., & West, S. G. (2009). Looking again, and harder, for a link between low self-esteem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77*, 427-446.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343-349.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Ferguson, L. L., & Gariépy, J. L. (1989). Growth and aggression, I.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20-330.
- Ciarrocchi, J., Forgas, J. and Mayer, J. (2001). *Emotional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 A*

- Scientific Inquiry*. Philadelphia, PA: Taylor & Francis.
- Cillessen, A. H. N., & Mayeux, L. (2004). From censure to reinforcement: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75*, 147 - 163.
- Cohen, N.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 Coie, J. D., & Dodge, K. A. (1998).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 (Editor-in-Chief)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Vol. 3. New York: Wiley.
- Cole, P. G., Chan, L. K., & Lytton, L. (1989). Perceived competence of juvenile delinquents and nondelinquen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3*, 294-302.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33*, 610 - 617.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Werner, N. E. (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 1630 - 1639.
- Crick, N. R., Werner, N. E., Casas, J. F., O'Brien, K. M., Nelson, D. A., Grotpeter, J. K., & Markon, K. (1999). Childhood aggression and gender: A new look at an old problem. In D. Bernstei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Th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Crick, N. R., Ostrov, J. M., & Werner, N. E.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and Children's Social -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 131 - 142.
- Ekman, P. (2003). *Emotions revealed: Recognizing faces and feelings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emotional life*. New York: Times Books.
- Elias, M. J., & Clabby, J. F. (1988). Teaching social decision making. *Educational Leadership, 45(6)*, 52-55.
- Elias, M. J., Gara, M. A., Schuyler, T. F., Branden-Muller, L. R., & Sayette, M. A. (1991). The promotion of social competence: longitudinal study of a preventive school-based progra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 409-417.
- Elias, M. J., & Tobias, S. E. (1990). *Problem solving/decision making for social and academic success*. Washington, DC: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 Elias, M. J., Zins, J. E., Weissberg, R. P., Frey, K. S., Greenberg, M. T., Haynes, N. M., Kessler, R., Schwab-Stone, M. E., & Shriver, T. P. (1997). *Promot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Guidelines for educators*.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ron, L. (1987).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a developing behaviorism. *American Psychologist, 42*, 435-442.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logy*, 51, 115-134.
- Gilbert, P., Broomhead, C., Irons, C., McEwan, K., Bellew, R., Mills, A., Gale, C., & Knibb, R. (2007). Development of a striving to avoid inferiority scal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 633-648.
- Gilbert, P., McEwan, K., Bellew, R., Mills, A., & Gale, C. (2009). The dark side of competition: How competitive behaviour and striving to avoid inferiority are linked to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self-harm.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2, 123-136.
- Gohm, C. L., & Clore, G. L. (2002a). Affect as information: An individual-differences approach. In L. F. Barrett, & P. Salovey (Eds.), *The wisdom in feeling: Psychological processes in emotional intelligence* (pp. 89-11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ohm, C. L., & Clore, G. L. (2002b). Four emotion traits and their involvement in attributional style, coping and well-being. *Cognition and Emotion*, 16, 495-518.
- Gottlieb, M. M. (1999). *The anger sel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nger management*. Phoenix, AZ: Zeig, Tucker & Co. press.
- Greenberg, M. T., Kusche, C. A., Cook, E. T., & Quamma, J. P. (1995). Promoting emotional competence in school-aged children: The effects of the PATHS curriculum.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117-136.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 - 33.
- Keppel, G., & Zedeck, S. (1989). *Data analysis for research designs*. New York: W.H. Freeman.
- Kirkpatrick, L. A., Waugh, C. E., Valencia, A., & Webster, G. D. (2002). The functional domain specificity of self esteem and the differential prediction of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756-767.
- Konrath, S.,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6). Attenuating the link between threatened egotism and aggression. *Psychological Science*, 17, 995-1001.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M. Brackett, & J. D. Mayer (Eds.), *Emotional intelligence* (pp. 29-59). Port Chester, NY: National Professional Resources, Inc.
- Mayer, J. D., Salovey, P., & Caruso, D. R. (2002). *Mayer-Salovey-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 MSCEIT item booklet*. North Tonawanda, NY: MHS.
- Mayer, J. D., Salovey, P., Caruso, D. R., & Sitarenios, G. (2003). Measuring emotional intelligence with the MSCEIT V2.0. *Emotion*, 3, 97-105.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 Maslow, A.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Rev. ed.). New York: Harper & Row.
- McCarthy, J.D., & Hoge, D.R. (1984). The dynamics of self-esteem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396-410.
- McKinney, E, Miller, D. J., Beier, L., & Bohannon, S. R. (1978). Self-concept, delinquency, and positive peer culture. *Criminology: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5, 529-538.
- McNeilly-Choque, M., Hart, C. H., Robinson, C. C., Nelson, L. J., & Olsen, S. F. (1996).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on the playground: Correspondence among different informant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1, 47-67.

- Mehrabian, A. (2000). Beyond IQ: Broad-based measurement of individual success potential or emotional intelligence.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6, 133-239.
- Moore, T. M., Stuart, G. L., McNulty, J. K., Addis, M. E., & Cordova, J. V. (2010). Domains of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a clinical sample of violent men. *Psychology of Violence*, 1, 68-75.
- Nutbeam, D., Wise, M., Bauman, A., Harris, E., & Leeder, S. (1993). *Goals and targets for Australia's health in the year 2000 and beyond*.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 Olweus, D. (1979).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852-875.
- Ostrov, J. M., & Keating, C. F. (2004). Gender differences in preschool aggression during free play and structured interactions: An observatio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3, 255 - 277.
- Perez, M., Vohs, K. D., & Joiner, T. E., Jr. (2005). Discrepancies between self- and other-esteem as correlates of agg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 607 - 620.
- Salovey, P. (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other way to be smart?* Korea Institute of Social Psychiatry & Samsung Life Insurance Company.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Turvey, C., & Palfai, T.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p. 125-2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eff, T. J., & Retzinger, S. M. (1991). *Emotions and violence*. Toronto, Canada: Lexington Books.
- Seligman, M. E. P. (1991).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New York: Knopf.
- Spielberger, C. D. (1988).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research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pp. 89-108). New York: Springer-Verlag.
-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eman, S. J.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H. Kassirer (Ed.), *Anger disorders: Definitions, diagnosis, and treatment* (pp. 49-67).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Spielberger, C. D., Ritterband, N. M., Sydeman, S. J., Reheiser, E. C., & Unger, K. K. (1995). Assessment of emotional states and personality traits : Measuring vital signs. In J. M. Butcher (Ed.), *Clinical personality assessment: Practical applications* (pp. 43-5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R. H., Turner, T. J., Garonzik, R., Leach, C. W., Urch, V., & Weston, C. (1996). Envy and schadenfreu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158 - 168.
- Strano, D. A., & Petrocelli, J. V. (2005). A preliminary

nary examination of the role of inferiority feelings i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61, 80-89.

Tangney, J.,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ress.

Taylor, G. J. (2000). Recent developments in alexithymia theory and research.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5, 134-142.

Twenge, J. M., & Campbell, W. K. (2003). "Isn't it fun to get the respect that we're going to deserve?"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261 - 272.

Webster, G. D. (2007).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physical aggression necessarily U-shape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 977 - 982.

원고접수일: 2010년 8월 30일

수정논문접수일: 2010년 10월 18일

게재결정일: 2010년 10월 22일

#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emotional competence and anger control on the relation between inferiority feelings and aggression in adolescents

Jin-young Kim

Division of Human Development,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emotional competence and anger control on the relation between inferiority feelings and aggression in adolescents. The participants were 309 high school students (136 males, 173 females). They were administered the Inferiority Scale (Kim, 1996), the Korean Version of Aggression Questionnaire (AQ-K; Seo & Kwon, 2002), the Korean Version of Trait Meta-Mood Scale (K-TMMS; Lee & Lee, 1997), and the Korean Vers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K; Chon, Hahn, Lee, & Spielberger, 1997).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 of inferiority feelings, anger control, and perceived emotional competence on aggression.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 effects of inferiority feelings, anger control, and perceived emotional competence on aggression. In the group with high inferiority feelings, anger control lowered aggression regardless of perceived emotional competence. On the contrary, in the group with low inferiority feelings, the attempts to control anger without perceived emotional competence increased aggr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psychological programs dealing with inferiority feelings and aggression in adolescents should include methods to enhance perceived emotional competence along with effective anger management skills.

*Keywords: inferiority feelings, aggression, anger control, perceived emotional competence*